서보環境(株)

人和 서보

■ 편집부

▲실험광경

'하면된다'는 뜻을 가지고 1982년 3월 자가측정 대행업체 서보환경(주)를 설립한 김호정사장(37)은 서울보건전문대학에서의 5년여 위생전공 교직생활을 포함 환경계에서 보낸 10여년의 보람을 이렇게 말한다.

'국가환경정책에 부응하여 맑고, 푸른환경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에 긍지를 갖고 있읍니다.' 김사장은 현재에도 주2일 속초의 모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다.

'공지사항—금주 토요일은 ○○실업과 보울링대회가 있읍니다.' 서보의 게시판에는 이외에도 사내등산 및 각종 스포츠 행사에 대한 안내가 자주 게시된다. 人和단결을 경영의 우선으로 삼는 탓에 매월 마지막 주말은 휴무로 이런 행사가 공식화되었다고 한다. 계측기 및 이화학실험기기, 실험실설비 등 종합상사로서 이미 서보상사라는 상호로도 잘 알려진 同社이다. 서보에서 자랑할만한 것은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술인력, 이들이 정확하고 면밀한 측정과 분석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환경관리인도 처리기술 이외에 분석방법까지 알아야 된다는 취지 아래 서보는 매주 월, 토 이틀 동안 실험실을 회원업체에 한해서 개방하고, 환경관리인들에게 실험분석 방법을 지도하는 진보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보환경이 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약200개 정도로 행정적인 제반문제와 기술상담 등 환경관련업무를 무료상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한 서비스정신에서 발로한 아프터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기술적인 부문에서의 자문 및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에까지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잊을 수 없는 여러가지 에피소우드를 낳고 있다. 서보는 앞으로 이러한 자체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분석용역사업과 계측기기들의 국산화제조 및 더 나아가 외국에 수출을 하므로써 외화대체 목적에도 기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주소 : 서울시영등포구양평동3가78-20
☎ (02)635-2350, 633-6330, 676-1330